

보도 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 일시	2023. 5. 10(수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 성 과	영종청라계획과
담 당	과장 강영훈, 영종계획팀장 김철환, 담당 박장걸(032-453-7583)

강화 남단 · 수도권매립지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7월 착수 인천경제청, ‘경제자유구역 확대(북부권)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’ 발주 개발 계획 수립 · 투자용지 확보 · 재원 마련 방안 등 종합 검토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북부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.
- 인천경제청은 강화 남단과 수도권 매립지 일대에 대한 ‘경제자유구역 확대(북부권)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’을 오는 7월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.
- 이에앞서 지난달까지 용역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중 입찰 공고를 거쳐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이다.
-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5년까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이 최종 목표다.
- 이번 용역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‘뉴홍콩시티 프로젝트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강화 남단 18.92㎢와 수도권 매립지 16.85㎢ 등 총 35.77㎢이 대상이다.
- 인천경제청은 지역 여건과 시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콘셉트를 찾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

이다. 또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시설 및 투자용지 확보 방안,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진행한다.

-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“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지역 및 원도심과의 균형 발전이 시급하다”며 “차질없이 용역을 추진,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통해 개발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